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김 소 영\* · 이 병 화\*\*

서일대학 의상과 조교수\* · 서일대학 의상과 겸임교수\*\*

## A Study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for Body expressed by Modern Fashion

So-Young Kim\* · Byoung-Hwa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College\*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College\*\*

(2004. 1. 7 토고)

### ABSTRACT

The beauty of the body could separately be defined from area to area, but there can't be any universal definition of it that is applicable throughout the world. The modern discourses on the body have frequently dealt with that, and the beauty of the body should be studied in light of sociocultural background. In today's world fashion industry, the body is represented in various ways, and how to express the body itself is consider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s it's now required to approach to fashion from the sociocultural standpoint of the body, a semiotic interpretation method was introduced. The reason was that from the viewpoint of semiotics, the beauty of the body has different implications for society as cultural sign, and they also could be regarded as sociocultural codes.

In order to improve new light on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body and how it's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earlier studies and existing theories were examined. The semiotic interpretation method was used to find out what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body stood for and what implication it had for fashion. And in which way fashion represented aesthetic consciousness, including satire, pleasure, grotesque and decadence, through the body was examined. Fashion creates an artificial beauty of the body, and change in the body is followed by change in fashion.

Key words : beauty of body(신체미), satire(풍자미), pleasure(유희미), grotesque(기괴미), decadence(쾌락미)

## I. 서 론

신체는 역사 속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신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 질서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채색, 문신, 변형 등을 통해 또는 의복 및 패션으로 조절되어 사회·문화적 신체가 되어왔다. 이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상징의 제일차적 근원이라고 한 것<sup>1)</sup>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예술작품에 나타난 신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체미는 특정한 사회적 배경에서의 규명은 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아름다움은 절대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회를 통해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미에 대한 선호 및 문화적 이상과 기준을 터득해 나간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현대에 들어와 몸에 대한 담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가 다양한 인공적 수단들을 통해서 문화적 이미지를 가진 신체로 재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패션계는 신체를 표현하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폭넓게 보여지고 있으며, 미래 패션으로 신체 자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체와 관련된 패션 연구를 살펴보면, 김윤희<sup>2)</sup>는 신체의 미의식과 패션을 관련시킨 연구를, 김은희<sup>3)</sup>는 신체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를, 유태순, 전경숙<sup>4)</sup>은 신체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접목시킨 연구를, 권기영, 조필교<sup>5)</sup>은 신체이미지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를, 김소영<sup>6)</sup>은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신체미를 접목시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미의식과 현대 패션 속에 표출된 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신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신체에 구현된 의미와 신체와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복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근접해있는 사회문화, 철학, 미학, 기호학 등과 접목시켜 설명 가능한 모형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또 기호학적 해석 방법을 도입하여, 문화적 기호로서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신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미가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신체에 대한 논의들, 신체에 구현된 의미들이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체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2. 신체담론을 기반으로 신체에 구현된 의미는 무엇이며, 신체는 어떤 미적 특성으로 보여지는가?
3. 신체미가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연구방법은 이론 연구를 위하여 철학·미학·사회학·대중문화 분석 및 비평, 예술 그리고 복식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체 및 복식이 시각적 대상임을 감안하여 패션관련 서적 및 패션잡지,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의 시각자료를 분석자료로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체에 대한 논의

서구철학사에서 몸과 정신의 이분법적 논리는 플라톤<sup>7)</sup>에서부터 데카르트를 거쳐 혜겔에 이르기까지 합리주의적 인식론의 토대를 형성했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sup>8)</sup> 둘째로가 '이원의 기계들'이라 표현했듯이, 정신과 몸을 분리시켜 인식하여 온 정신 중심의 이원론에서는 위, 초감각적인 것, 남성적인 것을 같은 항에, 그리고 아래, 감각적인 것, 여성적인 것을 신체와 같은 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주체는 남성이며 남성의 로고스는 만물의 척도로서 서양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다.<sup>9)</sup> 즉 '여성'과 '신체'라는 개념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니체(Nietzsche)는 신체를 이분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체는 많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영혼은 사회성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몸은 이론적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

회성의 대상이라고 하였다.<sup>10)</sup>

푸코(Foucault)는 『처벌과 감시』에서 ‘신체는 정치적 테크놀로지를 내포하기 때문에 권력관계와 대상관계의 일반적인 역사를 읽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18세기에는 감시기술들에 의해 신체가 통제되었다<sup>11)</sup>고 설명하였다. 푸코의 신체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수한 변형들을 겪는다. 그래서 권력관계가 그 가장 구체적인 국면에서 드러나는 지점이다. 신체는 욕구와 욕망의, 그리고 생리과정과 신진대사의 장소임과 동시에 정치적 영역에 포획되어 있으며, 권력관계는 “신체를 공격하고, 그것에 낙인을 찍고, 혼련시키고, 고통을 주고, 노역을 강제하고, 의식을 강요하고, 그것에 여러 가지 기호를 부여한다.”<sup>12)</sup> 그가 주목한 신체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이 억압한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길을 통해 조명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구명이 등장시킨 신체이다. 또, 메를로 풍티(Merleau-Ponty)는 사람들이 다른 대상과 상호 작용 할 때, 신체가 기초적인 경험 매개체로 의미와 질서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신체 이미지가 지각의 집합이나 하나의 연상구조가 아니라 형태를 통합하는 성격을 떤다<sup>13)</sup>고 했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는 소비사회에서 신체가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신체는 ‘의도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되며, 동시에 심리적인 의미에서 물신승배된다.’고 하였다.<sup>14)</sup> 보드리야르가 지적했듯이 현대 소비社会의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대상이며, 날씬함과 아름다움은 아무런 자연적 친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社会의 기호체계는 이를 절대불가분의 것으로 표준화하고 신비화하고 있다.<sup>15)</sup> 한편, 소비행위의 의식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적인 면을 분석한 부르디외(P. Bourdieu)는 프랑스에서 ‘용모, 외견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의 성과 외모는 문화자본으로서 자본주의社会의 생존 경쟁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up>16)</sup>

인류학자들은 자연 상태의 신체가 문화적 신체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리고 신체 미의 기준은 문화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신체 미의 미의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sup>17)</sup>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는 서양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의 바탕에서 정신과 대립되는 이분법적 논리의 열등개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분법적 논리 이후 여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신체는 사회성의 대상, 권력의 지배를 받는 대상, 소비의 대상, 문화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대상 등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신체에 구현된 의미

### 1) 신체의 기호학적 해석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체미는 문화적 기호로서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호들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약호들’이 모여 기호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기호체계는 ‘문화의 실체’이자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의 규약을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대용물로서의 표상이 될 때 그 요소는 기호가 된다. 이 때의 규약을 약호(code)<sup>18)</sup>라고 한다. 약호는 바로 메시지(message)<sup>19)</sup>를 만들기 위한 약호편성(encodeage)의 준거기준이 되며, 어떤 표현이 기호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다.

페스(Peirce) 이후의 기호학 연구에서는 사진과 같은 기호를 위해서 도상(icon)이란 개념이 적용되었다. 도상 기호는 표현된 대상에 대한 지시를 유사성을 통해 만든다. 이와 달리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기호 유형은 상징(symbol)이라 부른다.<sup>20)</sup> 이러한 다양한 신체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며,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호적 측면에서 신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상징성

신체는 신체 자체가 전달하는 의미와 신체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성을 지녔으며, 이것은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전달적인 기호와 상징적 기능은 분명히 통제와 해석에 대한 시스템으로써 모든 문화속에 존재하고 있다. 상징 기호는 유사성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규칙에 의해 서로 약속을 했고 학습함으로써 인식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표상 부호'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기호들의 기호 내용은 약속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이다. 이러한 자의성에 의해 상징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므로 '관습성'을 지닌다.

고전주의적 몸의 재현이란 것은 자아를 실체로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 '완전히 표현가능한 인간형'이란 가정으로 익숙한 예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Vitruvian Man)』(그림 1)이라는 드로잉에서 볼 수 있다<sup>21)</sup>. 여기서 몸은 원이나 정사각형처럼 그것의 기의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기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이상화·관념화된 신체는 근대적 몸정치학의 전형으로서, 실제의 몸과 분리되어 '재현적 몸'이라는 권력의 원천으로 성립하게 된다.



<그림 1>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c.1487)  
출처: Renaissance, p. 30.

에른스트 칸토로비츠(Ernst Kantorowicz)에 의하면, 서양 중세 때부터 왕은 두개의 몸을 소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오직 왕만이 신성한 몸과 세속적 권력을 동시에 소유한다는 '몸 정치학'은 연약하고 사라져버리는 몸과 영구적인 몸을 동시에 성립시키는 것이다<sup>22)</sup>. 루이 마랭(Louis Marin)은 왕의 이러한 두가지 몸의 창조와 변형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소문자 'k'로 시작하는 유한한 몸의 왕은 이제 전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로 변화되고 바로 대문자 'K'로 시작되는 정치적 몸으로 재현된다. 즉 '자연적 몸'을 부인함으로써 몸의 정치학은 완전히 시각적 재현에 의거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폭력의 합리화가 가능해진다"<sup>23)</sup>.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라마르크(Lamarck)와 다윈(Darwin) 이후로 신성한 고립으로서의 전통적 신체개념은 종의 진화라는 새로운 구도에 자리를 내준다. 그것은 '근대적 몸'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현대에 들어와 모더니즘에서 본 신체는 변하기 쉽고 불완전하며 인간적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특정한 신체의 특징을 장려하여 물리적인 신체의 개발을 통제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본 신체는 유토피안적인 기획의 대가와 약점들에 대해 자각하는 것으로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 보다 최근의 반인종차별주의, 퀴어 이론들의 인식론적이고 파괴적인 간섭 때문에 이제 '인간의 몸'을 단일하고 보편적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비천함의 의미와 깨끗한 신체와 더러운 신체간의 긴장을 라캉의 상징적 질서라는 맥락에서 연구했는데, 안정적인 주체의 동질성의 형성은 과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육체성의 모드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비천한 신체는 일종의 은유적인 경계 -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존재의 초기 상태인 전 오디푸스적 단계로 돌리면서 상징적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 (2) 도상성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기호는 기의와 기표간의 결합이 유사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상징 기호와 달리 도상 기호의 의미는 구태여 학습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러운 인지적 행동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념체계상 어떤 특정한 의의를 지니고 제작되는 신체나 신체의 형상은 도상성<sup>24)</sup>으로 나타난다. 신체가 간직한 기억이나 신체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적합한 표상 방식은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것이다.<sup>25)</sup>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건장하게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욕망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은 시대에 따라 각기 고유한 차별성을 가진다. 가령 원시부족 사회에서 여성의 요란한 몸치장은 한 개체로서 그 여성 자신의 개성적인 자기표현이라 기보다는 부족이 그 여성에게 부과한 집단적 여성상의 표현이며 때에 따라서는 거대한 자연의 마력에 대처하기 위한 주술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남성들의 경우도 동일하며 그의 몸에 그려진 문신은 그 부족의 힘을 재현하는 강력한 전사의 상징이자 다른 부족과의 혈연적 차별성을 드러내주는 기호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신체 재현의 한 방식으로서 얼굴의 문양은 그 부족의 문화적 생활양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얼굴문양에 대한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분석을 보면 신체의 외면적 표현에서 문화적 상징성이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카두베오족'의 여성<그림 2>과 남성의 얼굴에 새겨진 문양이 아주 체계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성별과 계급에 따른 이원주의를 분석했다. 이 부족의 남성과 여성의 얼굴문양은 추상과 표상, 각과 곡선, 기하학적인 모양과 아라베스크 문양, 선과 면이 대칭을 이룬다.<sup>26)</sup> 또한 얼굴 문양의 형태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그 개체의 사회적 역할이 다르며, 종교적 제식의 유형이 달라진다.



<그림 2> (좌) 1895년 카두베오족의 한 미녀,  
(우) 안면 도식을 한 카두베오족 여자.

출처: 슬픈얼대, pp. 32-34.

프랭크(Frank)<sup>27)</sup>는 신체의 중요한 특성은 신체가 스스로 창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현대인에게 신체는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형식들 중 하나이고,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성공에 아름다운 신체가 중요하다는 가치가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려는 여성의 욕망이 산업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표출 양식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몸의 시각적 재현의 창출과정은 오늘날의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라캉(Lacan)과 보드리야르(Baudrillard) 등의 관점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석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또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느끼면서 신체에 대한 미의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신체미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며, 사람들은 특정한 신체미가 개성에 적합하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불안감, 눈에 띄고 싶다는 욕망 등으로 신체를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는 신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성과 신체 자체의 형상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상성으로 나타난다. 신체는 이상화, 관념화, 권력화, 사회화의 상징성과 신체 장식, 아름다운 신체미의 추구를 통해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상성으로 보여진다.

## 2) 신체와 패션의 관계

르네상스 아래로 신체는 서구 예술의 중요한 주제였고 동시에 신체는 정치적 신체로서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중심적인 지점이자 메타포였다.<sup>28)</sup> 철학적 논의에서 미는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이지만, 패션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패션의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쟁취와 추한 인간의 비극을 포장하는 '거짓된 미'라는 것이 철학에서의 기본적 인식이다. 신체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는 신체와 패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보여지며,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외모를 가꾸도록 강요를 받고, 심지어 신체행동을 제약하는 의복스타일을 통해 노예화된다. 또 의상은 신체의 곡선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를 위장하거나 변형시킴으로써 거짓된 위장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여기서 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로 드러나는 여성의 신체는 단지 문화적 은유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종의 정치적, 직접적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sup>29)</sup>

신체와 패션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윈(Darwin, 1874)은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문화에 대해 조사했는데, 남성은 여성의 매력을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 한 가지의 미의 기준으로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시대에 따라 신체 일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신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 등 패션이 신체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칼릭(Kalick, 1989)은 모든 문화권 내에서는 연령과 사회, 경제적 상태,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sup>30)</sup>. 예를 들면, 짚은 여성의 티 없고 부드러운 피부는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매력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크리모어와 페더슨(Creekmore & Pederson, 1979)은 '정립된 미의 이상'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상적 미'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정립된 미의 이상은 시대와 장소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으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회적 이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추구하는 신체적 이상도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의복스타일이 변하듯이 유행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배너(Banner, 1983)는 19세기의 이상적 여성을 '견고하게 조각된 여인'과 '관능적 여

인'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둘 다 18인치 이하의 허리를 지닌 여인이지만, 전자는 섬세한 성격의 여성을 의미하고 후자는 건강하고 섹시한 여성을 의미한다. 견고하게 조각된 여인이라 도덕적 가치, 사회적 지위를 가진 동시에 외적인 연약함을 소유한 여성의 미를 상징했다. 19세기 중반까지 이런 유형이 낮은 계층의 크고 뚱뚱한 여성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선호되었다고 하였다.

마줄(Mazur, 1986)은 인류 문명의 초기에는 지리학적 차이 때문에 미의 다양성이 존재했지만, 20세기에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미와 패션 모두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동일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궐라우민(Guillaumin)은 여성의 신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논의하고,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신체에 대한 간섭을 유형화하였다. 역사상 각 시대마다 특정 사회집단의 선호가 특정한 외모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택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패션의 혼란이나 절단, 변형 등은 신체에 대한 표면적 간섭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신체와 패션의 경계를 한정짓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신체적 외양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려는 시도는 문신, 피어싱, 바디페인팅, 화장, 상흔, 의복 등의 신체 장식의 다양한 수행들에 의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신체는 경계이면서 경계가 아니며 이 모호함은 자아와 자아가 아닌 것간의 복잡한 관계를 낳는다. 다음의 <표 1>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에 대한 논의들, 신체에 구현된 의미들, 그리고 이들이 신체

<표 1> 신체 담론과 신체에 구현된 의미 분석

신체에 대한 논의	신체에 대한 논의	신체에 대한 논의	신체에 대한 논의
· 신체는 사회성의 대상 · 신체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 대상 · 신체는 문화적 기준이 되는 대상 · 신체는 이분법적 논리의 열등개념 · 신체는 소비의 대상	· 신체는 이상화, 관념화의 대상 · 신체는 권력화의 대상 · 신체는 사회화의 대상 · 신체는 상품가치를 높이는 기능적인 사물 · 신체는 사회적으로 통제받는 대상 · 신체는 나르시시즘적 패락의 대상 · 신체는 과시적 소비의 대상 · 신체는 욕망의 대상	· 왜곡된 신체 · 변형된 신체 · 상징화로 표현된 신체 · 문신, 상흔된 신체 · 왜곡, 과장된 신체 · 파괴, 변형된 신체 · 과편화된 신체 · 포스트모던 신체 - 경계의 해체 · 신체와 기계의 결합 · 아름답고 날씬한 신체 · 관능적이고 노출된 신체 · 모던 신체-규범적 신체	· 풍자미 · 유희미 · 기괴미 · 패락미

에 어떤 미적 특성으로 보여지는가를 정리해보았다. 이것을 기반으로 신체의 미적 특성을 사회성을 반영하여 상징화로 표현되는 풍자미, 왜곡, 과장된 신체로 표현되는 유희미, 파괴, 변화되는 신체미로 표현되는 기괴미, 아름답고 관능적인 신체미로 표현되는 패락미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미적 특성이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미

앤 홀랜더(Anne Hollander)<sup>31)</sup>는 패션이 변화됨에 따라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형도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옷감 등의 재질을 통해 신체에 옷을 입힘으로써 새로운 신체미를 창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적이고 생물학적인 신체 위에 우리가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면서 새로운 신체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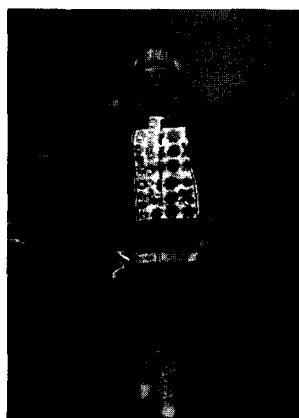
패션은 가공의 신체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의 변화는 동시에 패션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신체와 패션의 기호와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미적 특성을 풍자미, 유희미, 기괴미, 패락미로 코드화시켜 신체미가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 1. 풍자미

풍자(satire)란 작품내용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또는 모욕, 분노, 멸시 등의 태도를 적용하여 주제를 축소시키는 문학의 한 기교를 말한다. 코믹한 작품은 웃음 자체를 작품의 목적 그 자체로 삼는데 반하여, 풍자는 '조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코믹한 것과는 다르다.<sup>32)</sup>

60년대 팝아트는 여러 가지 기호, 낙서, 글자 등이 패션의 주요 모티브로 도입되어 풍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70년대 후반 등장한 부정적, 반항적, 파괴적 하위문화인 평크 또한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가죽 재킷, 티셔츠 등의 아이템에 직접 그려 넣었다. 또 그래피티는 불법 점유로 인한 권리와 소유권 표

시, 불연속적인 의사소통 전략, 지배층에 대한 저항, 소수민족의 정체감 형성, 불법적 반항적 행동에 대한 범죄적 영웅심리가 내재된 비전통적인 예술가들의 표출구였다. 이들은 도상, 지표, 상징 등 기호를 매개로 불연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일부러 혼란스럽고 읽을 수 없는 비밀스런 메시지를 이용하였다.<sup>33)</sup> 그래피티 록은 전달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인 문자를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신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 전달을 인식할 수 있다.〈그림 3〉 그러나 문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문자가 사용되면 언어로서의 기능보다는 문양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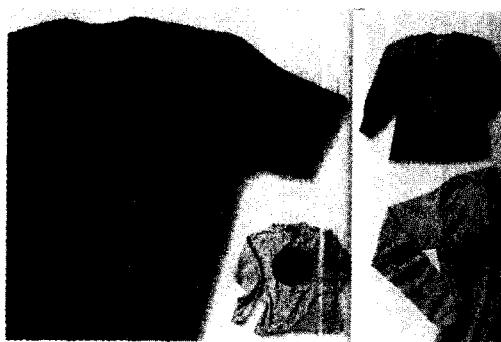


〈그림 3〉 Stephen Sprouse,  
S/S 1998.

출처: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신체의 풍자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인 레드 올 데드(Red or Dead)의 해밍웨이(Hemingway)는 문신이나 바디 페인팅, 메탈릭 가죽 옷이나 헤비메탈 티셔츠 모두 스트리트 패션과 음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기업체의 로고를 타켓으로 티셔츠를 만들었다. 후버(Hoover)<sup>34)</sup> 회사의 로고를 가지고 그루버(Groover)<sup>35)</sup>로, 레고(Lego)를 레도(Redo)로, 자파(Jaffa)를 나파(Naffa)로, 소니(Sony)를 포니(Fony)<sup>36)</sup>, 정유회사 셀(Shell) 로고를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 등 로고를 바꾼 티셔츠를 수천 개나 팔았다.'<sup>37)</sup> 〈그림 4〉 그는 캣워크 상에서 칼이나 피를 선보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몰취미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New York Dolls" 캐워크는 사실상 반핵 운동으로, 쇼 이면에 깔린 사고는 이 핵 폭탄 중 하나가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 4> Logo 티셔츠, Red or Dead, S/S 1991.  
출처: Red or dead, pp. 18-19.

또, 각 종교의 지도자들의 사진을 모아 구루(Guru)라는 제목의 프린트를 만들었는데, 시크교도가 커다란 칼을 휘두르면서 그 프린트가 자기 종교를 비하시키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또 "Sulky Fucky Love You Long Time"이라고 프린트



<그림 5> Sucky Fucky, Red or Dead, S/S 1995.  
출처: Red or dead, p. 37.

된 드레스는 극동의 섹스무역에 대한 기사를 보고 만든 것이고(그림 5), "마인(Mine)"이라고 적힌 티셔츠는 탄광 노동자들의 심각한 메시지를 이면에 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다.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풍자미는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 빈부와 환경 문제, 전쟁 반대 등의 메시지를 직접적 문구나 상징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의상에 프린트된 회화나 낱말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상대방에서 전달하며, 정치적 입장과 시각적 농담을 담고 있는 디자인들은 의미와 상정을 내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풍자적 메시지를 신체와 패션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 2. 유희미

슐러(Schiller)는 유희로서의 예술은 곧 "살아있는 형식"<sup>38)</sup>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본질의 삶과 이성적 본질의 형식을 조화시켜 놓고 있는 매개라는 의미에서 제기된 개념이었다. 헬무트 쿤(H. Kuhn)은 이미지의 제작(making)이라는 고전적 예술의 개념과 상상적 창조(creating)로서의 근대적 예술의 개념이 유희의 개념에서 오묘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희라는 개념에는 대치, 조합, 왜곡, 조작의 운용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어린이와 같은 본능적 차원에서의 놀이나 유희의 개념이 아니라 유희를 창출하는 주체의, 의도적인 조작이나 대치, 왜곡 등이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패션에서의 신체 장식은 이러한 유희미를 잘 표현하는 수단이며,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패션에 응용되고 있다.

첫째, 문신은 단순한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만이 아닌 섬유를 걸치지 않고도 신체를 무한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신 도안은 사람의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마술적 효과나 지위, 신분, 소속 등의 표식이었다. 그러나 문신이 중세 및 근대에 들어 죄수 및 범법자의 낙인으로 사용되었고, 폭력 및 범죄 집단의 일원이거나 어떤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과시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 서양복식에서 문신의 다양한 응용은 오로지 몸에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닌 소재 위에서 문양화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조작되는 것이다. 문신을 문양으로 응용함으로써 신축성이 뛰어난 웃감 위에 그려넣어 착장했을 때 직접 몸에 문신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도하는 타투룩(Tattoo Look)<sup>39)</sup>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6> 의도적인 조작에 의해 현대 복식 문화에서는 완벽한 조형미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신 행위가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던 인식이 이제는 신체를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림 6> 사진 Alberto Tolot.  
출처: The style engine. p. 205.

패션에서의 문신의 유행은 일본의 전위파 디자이너들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암마토(Yohji Yamamoto),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발렌티노(Valenti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등에 의해 시작되었고,<sup>40)</sup> 패션 속에 깊이 파고들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인공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보다는 신체를 직접 이용하는 바디 페인팅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패션 작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바디 페인팅을 통해 신체를 재해석하고 신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장식적인 의미와 심미적인 요소를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디 페인팅은 즉흥적 감성 표현을 위해 신체에 직접적인 페인팅이나 화장 그리고 의복에 프린트되어

다양하게 표현되며,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신체 상에 채색을 통해 의상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바디페인팅 퍼포먼스,  
2003.  
출처: [www.tattooedworld.com](http://www.tattooed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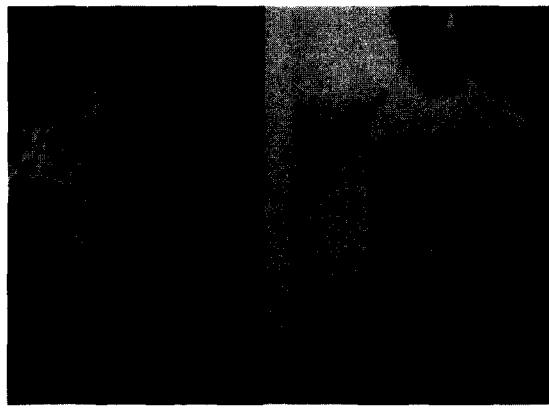
셋째, 신체 장식의 한 형태인 피어싱은 일부 젊은 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입술, 혀, 배꼽 등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여러 개씩 하는 피어싱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8>. 이들은 몸에 구멍을 뚫고 다양한 고리로 장식한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다고 여기며 만족해 한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피어싱 패션에 몰입하고 있으며, 유행의 창조자이며 추종자로 타인과 다른 존재라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장식을 한다. 그리고 의미를 상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타자를 찾게 되고, 결국 이들은 동일한 패션을 즐기는 또래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유희미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신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다양한 방법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몸에 걸쳐지지 않고 문신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의복의 역할을 하며, 문신, 바디페인팅, 피어싱 등의 신체장식을 통해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미는 하위문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여 기발한 개성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Thierry Mugler Evening Dress, 1998.

출처: Fashion today, p. 391.



<그림 9> (좌) A. McQueen, F/W 1994.

(우) Thierry Mugler, F/W 1995.

출처: Extreme beauty, pp. 268-270.

### 3. 기괴미

기괴미는 추악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형태라는 뜻으로, 무질제, 역설, 왜곡 등의 혼란하고 파괴적인 심리이다. 신체에 대한 파괴와 변형으로, 신체 파괴에 대한 잔인한 묘사와 섬뜩한 암시는 황폐해져가는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공격성과 가학적 충동으로 야기되는 인간본능의 폭력적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와 하이테크(high-tech)풍의 소재는 기괴미를 표현하는 좋은 도구이다. 기하학적인 형태는 삶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를 나타내며,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형으로 단일성으로 집합된 이상적인 정신의 표현인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미학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그림 9> 파코 라반(Paco Rabanne)과 같은 미래를 테마로 한 디자이너들은 하이테크 감각의 소재, 즉 인공 소재인 금속성의 광택을 가진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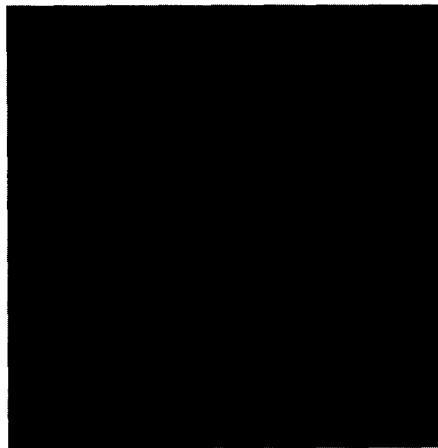
복식의 형태가 이상적인 신체의 형태에서 자유로 와 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로 만들어 놓은 신체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을 의도적으로 부정하여 기괴미를 표현한다.<그림 10> 즉 신체의 이상형을 추구하는 복식의 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형태 판단에 근거한 복식구조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신체형에 대해 무관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림 10> Victor and Rolf, F/W 2001.

출처: www.firstview.com

형태를 왜곡시킨 것 외에도 다른 측면의 왜곡된 의상은 '인체에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그 속에서 '인체가 둘러 싸여지는 것'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개념을 가지게 된다. <그림 11>의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디자인은 신체 형에 맞게 조절되는 의상을 통해 소재의 혁신과 함께 열림과 폐쇄의 공간미를 연출시킴으로써 인체에 대한 해석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림 12>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의 이질적인 결합을 통해 기괴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1> Hussein Chalayan, S/S 2000.  
출처: Fashion today, p. 386.



<그림 12> A. McQueen,  
S/S 2002.  
출처: www.firstview.com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기괴미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희극적인 것과 끔직스러운 것 혹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것의 혼합형태,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사물의 왜곡과 변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금속, 알루미늄, 우레탄, 형광섬유, 비닐 등의 소재와 최신 나염 테크놀로지 기법을 사용한 하이테크 감각의 소재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디자인을 재생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복식의 자아확대 개념을 넘어서 인체의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파격적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 4. 쾌락미

쾌락미는 데카당스(Decadence)를 뜻하는 말로서 '쇠퇴', '퇴폐'를 의미하며, 성숙했던 사회는 쇠퇴와 퇴폐로 기울어져 정치와 문화가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데카당스는 문화의 미적 퇴폐 과정이나 예술적 활동이 그 정상적인 힘 또는 기능을 잃고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 따위로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

페더스톤(Featherstone)은 신체가 쾌락의 표현수단이라고 말한다.<sup>42)</sup>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산윤리는 근면, 절도, 신중, 절약의 미덕을 강조한 데 비해, 오늘날의 소비윤리는 욕망의 확장, 쾌락적인 라이프스타일, 현재의 욕망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조장한다. 아름다운 신체가 공공연하게 성적인 매력, 과시, 향락주의와 관련됨에 따라 개인에게 외모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신체는 수없이 널려 있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존재에 의해 지배된다. 신체는 소비상품으로 물상화되고 성적 쾌락을 상품화된 양식으로 재스타일화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는 상품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기능적인 사물로 인식되었다.

패션에서 쾌락미를 상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노출에 의한 것인데, 은폐해야 할 신체 부위를 역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3>은 성행위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거나 암시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것으로 쾌락미를 나타냈으며, 의상, 발, 머리카락, 하이힐 등 비정상적인 이끌림을 이미지화 시킨 페티쉬 경향도 이에 속한다.

장 폴 골티에(J. P. Gaultier)의 벨벳으로 만든 원뿔형의 버스트 탑(Bust Top)은 은폐적이어야 하는 유방에서 느끼는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적 사고방식 못지 않은 아이러닉한 쾌락미이다. 가슴에 대한 골티에의 원뿔형의 구조는 인체에 대한 환희뿐만 아니라, 1950년대의 기호가 반영된 양식의 역사가 담겨있다고 본다.

아자딘 알라이아(Azzedine Alaia)는 1980년대에 60년대의 미니스커트가 다시 유행하고 여성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아름다운 신체를 표현하기 위해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옷과 신체의 긴장감을 표현하여 쾌락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14>는 존 갈리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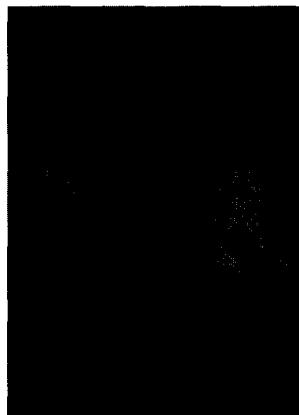


<그림 13> C. Dior Haute Couture, J. Galliano, F/W 2000.  
출처: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14> John Galliano ready-to-wear Collection, 1997-8.  
출처: Fashion today, p. 111.

(John Galliano)의 디자인으로, 퇴폐적 노출과 악마스러운 분위기의 문양을 사용해 신체의 패락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 <그림 15>는 골티에의 이브닝 가운으로 퇴폐적인 이미지의 그물망으로 에로틱하게 노출된 인체 위에 가슴의 모양을 그대로 본 떠 옷속에 가려진 부위를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성적인 부분을 과감히 강조하고 있다.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Evening Gown, S/S 1999.  
출처: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패락미는 퇴폐적이며 허무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악마스런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의 사용,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과 성적인 부분의 과감한 강조로서 나타난다. 신체는 패락의 표현수단이며, 아름다운 신체가 공공연하게 성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

	풍자 미	유화 미	기괴 미	패락 미
상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학성, 조롱성</li> <li>• 정치적 풍자성</li> <li>• 사회적 이데올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곡성</li> <li>• 장식성</li> <li>• 의도적 조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오성, 염세주의</li> <li>• 무절제, 역설성</li> <li>• 혼란성, 파괴성</li> <li>• 공격성, 가학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폐성, 쇠퇴성</li> <li>• 미적 항락주의</li> <li>• 신체의 패락성</li> <li>• 성적 과시성</li> </ul>
도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모티브 : 기호, 낙서, 글자, 로고</li> <li>• 직접접 문구 사용</li> <li>• 상징물 이용</li> <li>• 스트리트 패션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신, tattoo look</li> <li>• 바디 페인팅, 화장</li> <li>• 피어싱</li> <li>• 프린팅된 의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 변형</li> <li>• 기하학적 형태</li> <li>• 하이테크 소재</li> <li>• 의상과 왜곡과 변형</li> <li>• 복식구조 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 노출</li> <li>• 패티쉬 경향</li> <li>• 시스루, 바디페인팅</li> <li>• 성적 왜곡</li> <li>• 퇴폐적 장식품</li> <li>• 악마스러운 문양</li> <li>• 과감한 색채사용</li> </ul>

적인 매력, 과시, 향락주의와 관련되어 소비상품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미는 풍자미, 유희미, 기괴미, 패락미로 보여진다. 다음의 <표2>에서 각각을 상징성과 도상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IV. 결 론

신체는 본질적으로 기호 체계속에서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 대상이며,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자아와 관련을 맺는 동시에 타인의 인지를 얻는 대상이다.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전장하게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욕망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은 시대에 따라 각기 고유한 차별성을 가진다. 우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신체미는 개인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로 내재화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신체를 가꾸고 돌보게 된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 연구로 신체를 보는 여러 시각, 즉 이분법적 논리, 사회적 통제, 소비의 대상, 문화적 대상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신체가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는 문화적 기호라는 면 때문에 기호학적인 해석을 통해 신체미의 상징성과 도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체미 가운데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와 패션의 기호와 스타일을 잘 표현하는 미적 특성으로 풍자미, 유희미, 기괴미, 패락미로 코드화시켜, 이를 통해 신체의 미적 측면이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풍자미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직접적 문구나 상징물을 통해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 빈부와 환경 문제, 전쟁 반대 등의 메시지를 패션을 통해 보여주려는 상징성으로 나타난다. 의상에 프린트된 회화나 날말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상대방에서 전달하며, 정치적 입장과 시각적 농담을 담고 있는 디자인들은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풍자적 메시지를 신체와 패션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둘째, 유희미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신체를 장식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다양한 방법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몸에 걸쳐지지 않고 문신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의복의 역할을 하며, 문신, 바디페인팅, 피어싱 등의 신체장식을 통해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희미는 하위문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여 기발한 개성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새로운 융집단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기괴미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희극적인 것과 끔직스러운 것 혹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것의 혼합 형태,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사물의 왜곡과 변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체의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복식의 자아확대 개념을 넘어서 인체의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파격적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신체는 패락의 표현수단이며, 아름다운 신체가 공공연하게 성적인 매력, 과시, 향락주의와 관련되어 소비상품화되고 있다. 패락미는 퇴폐적이며 허무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악마스런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의 사용,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과 성적인 부분의 과감한 강조로서 나타난다. 신체문화의 미적 퇴폐 과정이나 예술적 활동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 따위로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측면의 신체미를 고찰하였다. 현대의 신체는 더 이상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추상화된 매체가 아니다. 신체는 사회와 문화적 의미를 표현하는 가장 알맞은 도구이며, 현대 패션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회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기호학적 면만을 부각시켰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이외의 다른 관점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피터 부록스, 이봉지, 한애경(역) (2000). 육체와 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31-32.
- 2)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은희 (2001).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 4) 유태순, 전경숙 (1996). 인체미의 이상형에 따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변화. 복식, 28호.
- 5) 권기영, 조필교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 6) 김소영 (200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 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플라톤은 몸과 정신을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로 파악하여, 몸을 변화하고 소멸되는 물질성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몸과 정신은 선과 악,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확산되었다.
- 8) 정화열 (1996). 생태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 7-8월호.
- 9) 오생근 (1993).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몸의 정치학: 시선과 권력. 문화과학사, pp. 95-121.
- 10) 앞의 책, pp. 119-200.
- 11) Foucault, M. C., 오생근(역), (1998).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pp. 135-136.
- 12) 스코트 래쉬, 김재필 (역) (1993).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학, pp. 69-75.
- 13) Entwistle, J. (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p. 55.
- 14) J. Baudrillard, 이상률 (역) (1997). 소비의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p. 188.
- 15) J. Baudrillard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Paris: Idees, Gallimard, p. 221.
- 이득재 (1993). 노출: 해체된 육체의 이미지. 문화과학 4집, p. 207 재인용.
- 16) 이영자 (1999). 소비대중여성과 패미니즘. 가톨릭대 성평등 연구, 3, pp. 57-93.
- 17) Creekmore & Pederson (1979). Body proportions of fashion illustrations 1840-1940 - compared with the greek ideal of fashion beau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6), p. 380.
- 18) code : 약호체계. 기호의 제약적 규칙의 총체. 전신약호, 신호, 부호, 기호, 언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기호가 약속에 의하여 그 결합 규칙을 이루는 단위와 규칙의 총체.
- 19) message : 전언. 기호에의 전달(communication)의 특

수적이고 완결된 단위.

- 20) 김영순 (2001). 신체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 서울: 나남출판, p. 24.
- 21) 여기서 남자의 모습은 두번 재현되어 있다. 하나는 직립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팔과 다리를 벌린 자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몸의 비례들은 두개의 완벽한 형태, 즉 원과 정사각형을 표상하게 된다. 다빈치의 이 작품은 바로 예술이 성립하는 완벽한 형태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이상적 인체에 대한 믿음을 이후 빈켈만(Winckelmann)의 '그리아스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반복된다.
- 22) Mirzoeff, N. (1995). *Bodyscape: Art, modernity and the ideal figure*. London & N.Y.: Routledge, p. 59.
- 23) Mirzoeff, ibid, p. 60.
- 24) 도상은 그리스어의 에이콘, 즉 이콘(이미지·상 등)에서 유래한 말로, 도상성은 어떤 특수한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는 특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술어로 쓰인다.
- 25) Thesander, M. (1997). *The feminine ideal*. London: Reaktion Books Ltd., p. 11.
- 26) 레비-스트로스, C., 박옥줄 (역) (1998). 슬픈열대. 서울: 한길사, pp. 372-377.
- 27) Frank, A. W. (1991). 앞의 책, p. 54.
- 28) 니콜라스 미르조예프, 이윤희, 이필(역) (1999). 바디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pp. 51-54.
- 29) Bordo (1992). *The body and the reproduction of femininity: A feminist appropriation of foucault*, in Bordo, Jaggar(eds.), Gender, Body, Knowledge, New Jersey: Rutgers Univ., p. 13.
- 30) Voctproa A Gpddard, Josep R. Llobera, Cris Shore (Eds.) (1996).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nationalism in europe*. The Work of Van Gennep and Mauss. The Anthropology of Europe-identities and Boundaries in Conflict. Oxford : Berg, pp. 104-105.
- 31) Lehnhert, Gertrud (1999). *Fashion-A concise history*. London: Laurence King, pp. 15-16.
- 32) 권택용, 최동호 (1993).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새문사, p. 275.
- 33) Jane Turner, *The dictionary of art*, 13, Grove, 1996, p. 270.
- 34) 청소기 등을 주로 파는 전자제품업체.
- 35) '멋진'이란 의미의 속어 groovy와 연관됨.
- 36) 거짓의, 위조의 라는 의미의 phony와 같은 발음을 이용한 것.
- 37) Kinswell, Tamsin (1998). *Red or dead: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London: Thames and Hudson, pp. 14-21.

- 38) 신현숙 (1992).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pp. 100-103.
- 39) 라사라편집부 (1992).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출판사, p. 59.
- 40) Gronnmark, Gatherine (1994). *The tattoo-graffiti for the soul*, New York: Sunburst Books, p. 19.
- 41) Milbank, Caroline Rennolds (1989).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New York.
- 42) Featherstone, M. (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London an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p. 170-171.